

아이를 위한 예술 놀이터

May, 2020 | 류현경 기자

page 1 of 2



아이를 위한 예술 놀이터

수집가의 물체주머니

색색의 선과 도형이 벽면에 가득하다. 삐뚤삐뚤한 계단 너머엔 다양한 촉감의 입체 구조물이 널려 있고, 복도를 나서면 관람객이 직접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자리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열네 번째 어린이갤러리 전시 시리즈 <물체주머니>의 전시장 풍경이다. 사실 <물체주머니>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전시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영나가 과거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학습 도구 주머니에서 타이틀을 가져와, 세대별로 사물이 연결하는 시간·기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이때 중요한 개념이 '수집'이다. 실제로 전시장 내 여러 작품은 물체주머니 속 물건처럼 기억을 발견하는 매개이자 디자이너의 실험 도구로 활용된다. 관람객은 각자의 기억을 수집하고 새로운 발자국을 포개며 이 공간을 함께 완성해간다. 기간 9월 13일까지 문의 02-2124-5201

interview 김영나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을 전시로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듯해요. 2015년 뉴욕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며 <SET>란 책을 만들었어요. 2006년부터 10년간의 작업을 모은 일종의 생을 복이죠. 그 안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벽화 그리거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변주해왔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SET v.20'을 선보이게 됐어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네요.** 예를 들면 전시장 한쪽에 '일기 주머니' 벽을 마련해 놓았어요. 관람객이 오늘 기억에 남는 일이나 관련한 사물에 대해 일기를 쓴 뒤 사물과 일기를 지퍼백에 넣어 벽에 거는 거죠. 그 건너편은 <물체주머니> 페인팅 체험 공간이구요. 어린이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원하는 페인트와 스텐실 틀을 골라 벽에 칠하고, 이후 도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에 포함돼요. **추천하는 관람법이 있죠?** 최대한 체험할 것. 원뿔 안에서 낫장을 잔다든지, 레인보 카펫에 드러누워 천장의 풍선을 본다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이 공간의 사용 방법을 개발할 테구요.



액자 속 그림 몇 점만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어렵다. 예술을 놀이처럼 느끼고 직접 체험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시 돌. 글 류현경 기자



불가능한 세계는 없다

세계 곳곳의 이색 건축물,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건축가들은 종종 우리가 불가능하리라 여겨온 많은 것을 현실로 바꾼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기획한 <말도 안돼>는 이러한 건축 세계를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아치, 다리, 마천루 등 세 가지 건축 요소를 표현한 해외 작가들의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는 한편, 관람객이 건축이란 창조적 분야를 오감으로 느끼고 탐구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이를테면 전시장 초입에서 그림책 원화 속 건축 원리를 발견한 뒤 어두운 방 벽면에 아광 터일을 붙이며 건축 형태를 탐구하고, 잔디 정원에 앉아 원하는 옥상 공간을 드로잉하다 보면 누구나 르코르뷔지에의 '옥상 정원' 콘셉트를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건축 사무소 플로라엔파우나의 이다미 건축가와 협업한 건축 실현 시도 이 전시의 필수 코스다. 기간 8월 30일까지 문의 031-5170-3700

interview 박수민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학예사

전시를 기획한 계기가 있나요? 2018 볼로냐 아동도서전 수상작을 보며 건축 그림책 분야가 지닌 엄청난 매력을 전시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데이비드 매글리, 디디에 코르니유, 데이비드 로버츠 등의 작가를 선정하고 연락하며 본격적인 전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어린이 전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호기심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가와 작품 선정부터 전시 구성, 프로그램 기획 등 모든 부분에서 이미 정해진 답을 던지는 일방적 전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전시 방향을 수정하고 다듬어나가죠. 사실 아이의 창의력은 어른이 생각하는 틀을 깨면 큰 놀라기에 답을 정해둔다 해도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시 연계 교육은 일일 프로그램으로 대상에 따라 중세 가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 '마음을 있는 다리(4-5세)', '기상천외 포트폴리오(6-7세)', '튼튼 트러스!(초 1-2)'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죠.